

中 저장성 투자환경 호평 해외 기업 만족도 96%

투자 이익률 증가·유지 기업도 87%…투자수익 전망 ‘긍정’
저장성 정부 처리 속도 ‘만족’ 93%…기반시설 만족도 91%

중국 저장성(浙江省)에 투자한 해외 기업들은 ‘저장성에 진출한 외국투자기업들은 ‘저장 규모가 크고 전망이 밝다’ ‘산업 체인·공급망이 완비되었다’ ‘전방위 대외개방 ‘디지털, 녹색, 신증 소비의 빠른 발전’을 현재와 미래 경영 환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저장성 대외 영사(領事)환경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저장성에 진출한 외국투자 기업들의 96%가 저장성의 기업 지원 환경에 대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응답 기업의 87%는 저장성에서의 투자 이익률이 증가하거나 유지되었다고 답했다. 향후 5년 간의 투자 수익 전망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이번 보고서는 저장성 무역촉진위원회가 처음으로 발표한 것으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대외적인 기업지원 환경 만족도 평가와 경영 전망에 초점을 맞춰졌다.

응답 기업들은 저장성의 정부, 생활, 법률, 중개, 상업 등 5개 분야에 대한 만족도가 모두 94%를 넘었다. 특히 정무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또한, 업무 처리, 기반 시설, 물류, 통관 등 4개 분야 효율성에서도 기업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응답 기업의 93%가 저장성 정부의 처리 속도에 ‘좋아요’라고 답했고, 응답 기업의 91%는 저장성 기반 시설 건설 효율성이 ‘비교적 높다’ 또는 ‘매우 높다’고 응답했다.

대외 영사환경과 관련된 12개 항목 평가에서 응답 기업들은 왕래 편의화, 외국인 및 유치 인재 생활 환경, 공공 기반 시설, 경영 장소 확보, 납세 등 5개 항목에 대해 가장 만족스럽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연수 기자 training@kwangju.co.kr

인니 자바섬 2km 산사태…사망 25명·실종 72명

구조대, 5m 진흙 맨손 수색 난항
현지 환경단체 “환경 파괴도 원인”

최근 폭우로 인도네시아 자바섬 서자바주 서부반동파시르랑구 마을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사망자가 25명으로 늘고, 72명이 실종됐다. 24일 사고 당시 초기 사망자는 8명이었으나, 수색 작업이 진행되면서 17명이 추가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은 들판과 탐지견을 투입해 진흙 속 실종자를 찾고 있으며, 경사면 지반이 약해 중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장 진흙더미 높이는 최대 5m에 달하며, 구조대원들은 맨손으로 시신을 끌어내고 있다. 당국은 수색 작업을 지속할 계획이나, 추가 폭우 시 경사면

불안정으로 위험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임시 구호센터에는 실종자 명단 확인을 위해 기록들이 몰렸다.

기브란 라카부팅 인도네시아 부통령은 유사 재해 예방을 위해 서자바주 당국에 조치를 지시했으나, 환경운동가들은 산사태 원인이 단순 폭우가 아닌 불법 개발과 환경 파괴라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환경단체 ‘왈히’ 서자바지부는 “공간 계획과 환경 기능을 무시한 활동이 누적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는 매년 10월~4월 우기 동안 산사태가 자주 발생한다. 지난해 11월 말에는 수마트라섬 북부 3개 주에서 폭우로 산사태와 홍수가 발생해 1200명이 숨지고 24만 명이 이재민이 됐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와 무분별한 별목, 난개발로 인한 산림 파괴가 피해를 키웠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미니애파리스에서 발생한 알렉스 프레티(37)의 총격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24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美 이민단속 요원 총에 시민 사망…보수도 돌아섰다

“투명한 조사 필요”…시민 영상과 당국 설명 엇갈려 논란 확산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파리스에서 연방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이 숨진 사건을 둘러싸고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연방 당국의 사건 경위 설명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가운데 공화당 정치인과 총기 소지 권리옹호 단체 등 보수 진영에서도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지시간 24일 오전 미니애파리스 시위 현장에서 37세 간호사 알렉스 제프리 프레티가 연방 경찰찰대 요원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국토안보부(DHS)는 프레티가 9mm 반자동 권총을 소지한 채 요원들에게 접근했고, 무장을 해제하려는 과정에서 총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들이 활용한 영상에는 프레티가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하며 쓰러진 시위자를 부축

하다 요원들에게 제압된 뒤 근접 사격을 당하는 모습이 담겨 있어 연방 당국의 설명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엿따르고 있다. 미 언론들은 사건 당시 프레티가 총기를 꺼내거나 사용하려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연방 당국의 해명을 “거짓말”이라고 비판하며 주 정부 주도의 수사를 예고했다. 미네소타주 당국은 연방 요원들이 수사에서 지역 당국을 배제하고 있다며 증거 보존을 요구하는 거처분 신청을 냈고, 연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사건은 불과 17일 전 같은 지역에서 미국 시민 르네 니콜 굿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숨진 데 이어 발생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두 사건 모두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 과정에서 벌어졌다.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전미총기협회와 총기 소유자 단체들은 “합법적인 총기 소지가 사살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연방 검사의 발언과 정부의 초기 대응을 문제 삼았다.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도 절저한 합동 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책임을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에 돌리며 강경 이민 정책을 옹호했다. 민주당은 ICE와 국토안보부 예산이 포함된 세출법안 폐기지 통과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연방정부 쟁다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미니애파리스에서는 총격 사건 이후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방 이민 단속 방식과 공권력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미국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이란 긴장 고조…미군 항모전단 중동 집결

이란, 테헤란 도심에 ‘피에 젖은 성조기’ 벽화 설치

미국이 이란 정권의 반정부 시위 유혈 진압을 경고하며 군사 개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중동에 항공모함 등 핵심 전력을 집결시키는 가운데, 이란은 테헤란 도심에 ‘피에 젖은 성조기’ 형태의 대형 벽화(시진)를 내걸었다. 벽화에는 미국 항공모함이 공격받는 모습과 함께 “바람을 뿐이며 회오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경고 문구가 담겨, 공격 시 전면전을 각오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란 고위 당국자는 제한적·전면적·외과식 등 모든 형태의 공격을 전면전으로 간주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혁명수비대 사령관도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려두고 있다”며 전투 준비 태세를 강조했다.

최근 이란은 작년 ‘12일 전쟁’ 당시보다 전면

군사 보복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과 마찬가지로 중동에 대한 군사 행동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에이브라 헬링컨 항모전단과 구축함, F-35 전투기 등 해상·공중 전력을 아시아태평양에서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항모전단은 이미 인도양을 거쳐 중동으로 향하고 있으며, 바레인 항구에 배치된 연안전투함, 페르시아만 구축함 등과 합류할 예정이다.

또한 유럽에 배치된 미군과 영국군 전투기들도 중동으로 전개됐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F-15 전투



기들의 중동 기지 도착 사실을 공개했으며, 영국 국방부도 유로파이터 파이퍼 전투기를 카타르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 농협



NH
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콤!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
에서 콤!
바로 바로 확인까지 콤!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zgm.the pay 카드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NH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순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기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자신용자, 저소득자 서민
(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산지점 062) 526-0222~3
치평지점 062) 381-8212~3
쌍촌지점 062) 381-6551~2
화정지점 062) 372-0421~3

유동지점 062) 512-1984~5
동립지점 062) 513-8521~3
운암지점 062) 527-3295~6
운천지점 062) 371-2772~3

유덕지점 062) 373-3235~6
동운지점 062) 528-2640~2
버들지점 062) 381-1971~2
상무동지점 062) 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 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 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 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 385-4977~8

동림아나로지점 062) 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 364-8400
유덕아나로마트 062) 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 511-2901~3